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555-563,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55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청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

김장호[1], 금용필[2*]
[1]계명대학교 경영학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혁신창업성장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fluencing factors in one's youth and the entrepreneurial behavior

Jang-Ho Kim[1], Yong-Pil Geum[2*]
[1]Lectur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2]Division of Innovative Start-Up & Growth, Daegu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대학생은 미래의 잠재적 창업자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은 창업문화 확산과 함께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창업의지와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창업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혁신성, 창업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대학생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호소하였으며,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istinguish between predisposing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urse and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Since company foundation involves uncertainty, potential entrepreneurs are known to fear creating a new company. Entrepreneurship has been confirmed in advanced studies to not only reduce this fear but also positively influence one'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presents a research model that connect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verifies it via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as a result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positively influenced by actively engaging with changes of a certain product or service, problem-solving capability, resolving unexpected setbacks during company foundation, and expertise in the business field where the founded company belongs to. It was also confirmed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discussed in order to essentially improv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ompany foundation via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Behavior, Startup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2681)
이 결과물은 2020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ng-Pil Geum(Daegu Catholic Univ.)
email: geum@cu.ac.kr
Received April 24, 2020 Revised May 19, 2020
Accept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20년 가까이 계속되는 청년실업 현상은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청년실업은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로 기술발달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동화와 외주용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접 고용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회피하는 현상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사회적 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결혼회피,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촉진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8,15].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창업교육 등 창업환경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은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틈새시장의 발굴, 안정적인 시장침투 등 성공에 이르기까지 창업자의 노력과 함께 정부를 비롯한 민간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단순히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필요하며, 창업자의 창업의지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부터 벤처창업이 붐을 일으키고, 실제 벤처창업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교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개설되고, 벤처창업학과, 창업대학원 등이 신설되는 등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창업교육은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창업지식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열정과 태도, 사업화의 실현가능성,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교육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기업가정신은 창업자들로 하여금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의 창업교육에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6].

창업교육은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수강자의 수강의도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이수가 반드시 창업의도를 높이거나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창업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후 창업의지를 확인하고 또한 어떤 요인들이 창업의지를 향상시키는지 발견하여 커리큘럼의 수정, 교육방향 설정 등 창업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창업교육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틈새시장의 개척과 시장침투의 안정성 등 절차마다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 없지만 무엇보다 창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창업의지에 도움을 주는 요소의 하나로 기업가정신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창업교육에서 기업가정신에 관한 주제는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Schumpeter[17]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특성과 활동에 근거하고, 기업가 개인의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가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업가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제품, 생산방법, 시장, 공급자, 기업구조의 차원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가로 혁신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창조적 파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거둔 국내 벤처기업,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 들어 창업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창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양준환[6]은 미래 예측에 대한 통찰력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사업의 위험을 계산하여 도출된 불확실성에 도전하여 결단성있게 창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위험에 대한 모험, 불

확실성에 대한 도전, 근면함, 절망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 창조와 개선 등과 같은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강재학, 양동우[1]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창업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Miller[16]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Lumpkin & Dess[15]은 경쟁적공격성, 자율성, 성취욕구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Brush[10], Lerner et al.[14], 김용태[3], 박소연[4] 등의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함께 문제해결능력과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의 관계

기업가정신은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험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때문에 창업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에게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한 개인이 타고나는 기질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고 한다[19],[20],[22].

의지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마음의 상태로[21], 특정행동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의지에 관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23]. 즉,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선행과정이며, 의지의 수준에 따라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후 행동을 통해 나타날 미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하게 될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양준환[6]은 미래 잠재적 창업자일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과 창업 후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창업동기를 형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증한 결과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 기업가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며, 특히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영미, 박성환[7]은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만족도, 개인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행동이 촉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가 함양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정희, 김정호[8]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교육과 창업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자신감이 창업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창업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시장에서의 기회포착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실증연구

3.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제약이 크므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armann et al.[13], Lumpkin and Dess[15], Miller[16] 등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함께 기업가적 스킬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3]. 따라서 김용태[3], Brush[10], Lerner et al.[14], 박소연[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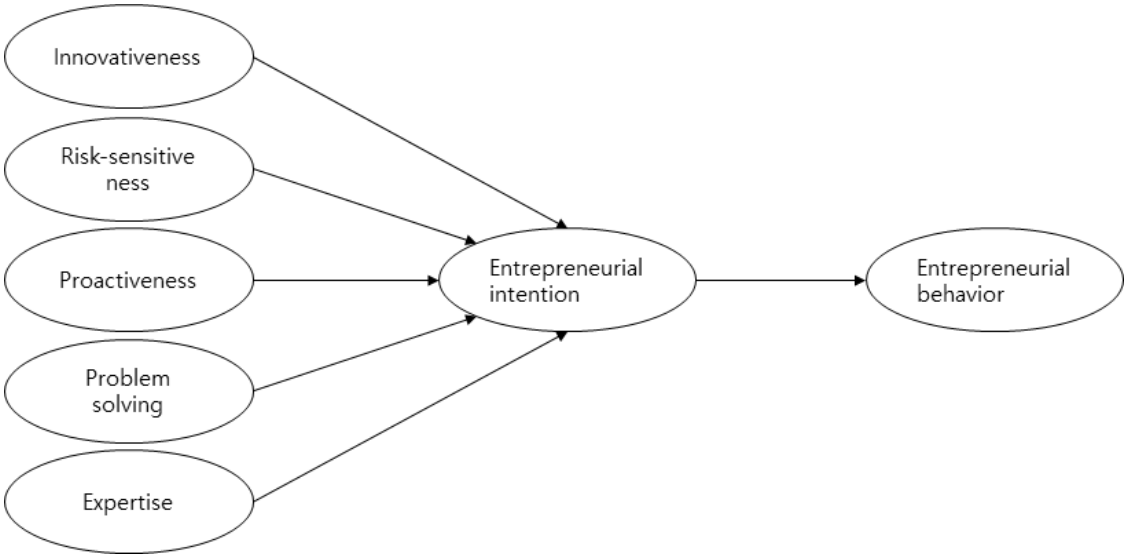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설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가설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업가적 스킬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가설 즉,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설1.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문제해결능력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전문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도구의 개발과 설문지 구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정된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수정은 예를 들어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의 경우 “변화와 혁신의 강조”의 경우 “창업활동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인 창업기업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창업분야 교수 및 창업분야 전문멘토 등 3명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원측정도구의 의도를 유지하면서 창업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응답이 용이한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변수는 Karmann et al.[13], Lumpkin and Dess[15], Miller[16] 등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고,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창업의지, 창업행동은 김용태[3], Brush[10], Lerner et al.[14], 박소연[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서 측정도구의 측정은 리커트형 7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마다 해당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으면 1점,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면 7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3.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검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대구지역 1개 4년제 대학교에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2개 학기(1년) 중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7월 2개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설문지 700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자료는 503부로 이 가운데 설문을 중도에 그만두는 등 완성도가 낮거나, 하나의 번호에만 집중적으로 응답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Table 1. Measurement

Variable	Measurement	Related research
Innovativeness	1. Emphasis on change and innovation	Karmann et al.(2016) Lumpkin and Dess(1996) Miller(1983)
	2. Preference for problem solving by my own creative method	
	3. Preference for work by my own new method	
	4. Exploring for change and innovation	
Risk-Sensitiveness	1. Risk taking for the accomplishment of goals	
	2. Accepting new ideas, despite uncertain results	
	3. Emphasis on exploration and experiment for problem solving	
	4. Setting challenging goals	
Proactiveness	1. Taking the initiative in work and strategy	
	2. Familiar with creating new opportunities	
	3. Taking action first followed by others	
	4. Getting a head start on new opportunities	
Problem solving	1. Creatively solving complicated problems	Brush(1992) Lerner et al.(1997) Kim(2015) Park(2010)
	2. Fast and Clearly solving simple problems	
	3. Solving unexpected problems	
	4. Facing up to complex and unexpected problems	
Expertise	1. Familiar with turning ideas into new opportunities	
	2. Familiar with improving existing products	
	3. Preference for developing new markets	
	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distribution channel	
Entrepreneurial intention	1. Taking a risk from business	
	2. Confidence in running a new business successfully	
	3. Passion for launching business	
	4. Confidence in performing any duties with competence	
Entrepreneurial behavior	1. Planning for creating business in the future	
	2. Thinking about items for new business	
	3. Acquisition of knowledge necessary for new business	
	4. Accumulation of funds necessary for new business	

하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28개이다.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가 48.83%(209개), 여자가 51.17%(219개)이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45.33%(194개), 3학년이 25.47%(109개), 4학년이 29.21%(125개)이다. 또한 전공별로는 경영, 경제, 회계, 경영정보, 사회 등 사회과학계열이 52.34%(224개), 기타 인문, 자연, 공과, 의약학, 예술분야 전공자가 47.66%(204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ata

		Frequency	Ratio
Sex	Male	209	48.83
	Female	219	51.17
Grade	Grade 2	194	45.33
	Grade 3	109	25.47
	Grade 4	125	29.21
Major	Social	224	52.34
	Others	204	47.66
Sum		428	100.00

4. 실증적 분석

4.1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가설검정에 앞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가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인적재치 합의 제곱을 요인적재치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합을 더한 값으로 나눈 수치 즉, 복합신뢰성(CR)이 최소 0.60 이상이어야 하며,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9,12], 본 연구의 신뢰성 검정 결과는 위험감수성이 0.61로 가장 낮았고, 창업의지가 0.63 등으로 모든 변수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값으로 나타났다.

타당성분석은 요인적재치가 0.60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요인적재치 제곱의 합을 요인적재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합을 더하여 나눈 값 즉, 평균분산추출계수(AVE)가 0.50이상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의 네 번째 문항과 창업의지의 세 번째 문항이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여 제외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적재치가 0.50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평균분산추출계수도 0.50 이상으로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확인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는 $\chi^{2}_{d.f.}$=757.17(278), $\chi^2/df.$=2.72, RMR 0.08, GFI 0.87, AGFI 0.84, CFI 0.94, RMSEA 0.06로 나타났다.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Esti-mate	S.E.	t-value	CR* (AVE**)
Innovativeness 1	0.74	0.06	16.30	0.70 (0.65)
Innovativeness 2	0.86	0.05	19.73	
Innovativeness 3	0.83	0.05	19.05	
Innovativeness 4	0.80	-	-	
Risk-Sensitiveness 1	0.72	0.06	15.20	0.61 (0.54)
Risk-Sensitiveness 2	0.73	0.06	15.47	
Risk-Sensitiveness 3	0.78	-	-	
Risk-Sensitiveness 4	0.70	0.06	14.60	
Proactiveness 1	0.79	-	-	0.68 (0.62)
Proactiveness 2	0.81	0.05	17.78	
Proactiveness 3	0.80	0.05	17.62	
Proactiveness 4	0.76	0.05	16.66	
Problem solving 1	0.77	-	-	0.64 (0.58)
Problem solving 2	0.77	0.06	16.33	
Problem solving 3	0.74	0.07	15.76	
Expertise 1	0.80	0.05	18.25	0.69 (0.64)
Expertise 2	0.80	0.06	18.10	
Expertise 3	0.80	0.06	18.16	
Expertise 4	0.80	-	-	
Entrepreneurial intention 1	0.76	0.06	16.43	0.63 (0.56)
Entrepreneurial intention 2	0.81	-	-	
Entrepreneurial intention 3	0.68	0.07	14.36	
Entrepreneurial behavior 1	0.81	0.05	20.91	0.72 (0.68)
Entrepreneurial behavior 2	0.87	-	-	
Entrepreneurial behavior 3	0.86	0.04	23.25	
Entrepreneurial behavior 4	0.74	0.05	18.25	

* : composite reliability
** : average variance extracted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계수와 평균분산추출계수의 제곱근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는데 판별타당성 판별의 기준은 평균분산추출계수의 제곱근이 상관관계계수보다 크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Fornell and Larcker[11]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 4〉에 제시된 상관관계계수와 평균분산추출계수 제곱근의 값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Fornell and Larcker[11]의 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d validity

	(1)	(2)	(3)	(4)	(5)	(6)	(7)
(1) Innovativeness	***0.81***						
(2) Risk-Sensitiveness	0.72	***0.73***					
(3) Proactiveness	0.67	0.71	***0.79***				
(4) Problem solving	0.68	0.72	0.75	***0.76***			
(5) Expertise	0.64	0.68	0.66	0.74	***0.80***		
(6) Entrepreneurial intention	0.50	0.58	0.60	0.70	0.70	***0.75***	
(7) Entrepreneurial behavior	0.40	0.52	0.50	0.57	0.60	0.74	***0.82***

주) 대각선의 이탤릭체로 굵게 표시된 수치는 AVE의 제곱근

4.2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df.$=2.69(기준 3이하), RMR=0.08(기준 0.10 이하), GFI = 0.87(기준 0.80 이상), AGFI = 0.84(기준 0.80 이상), CFI = 0.94(기준 0.90 이상), RMSEA = 0.06(기준 0.08 이하)로 나타나 Fornell and Larcker[11], Hatcher[12]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적합도의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각 변수별 관계에 대한 가설의 검정을 살펴보면 혁신성, 문제해결능력, 전문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설검정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와 0.01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7로 유의수준 0.05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56과 0.57로 나타났으며,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Table 5. Hypotheses test result

Path				Estimate	S.E.	t-value	Fitness
H 1	**Innovativeness**	→	**Entrepreneurial intention**	**0.17**	**0.09**	**1.95***	$\chi^{2}_{d.f.}$=761.56(283) $\chi^{2}/df.$=2.69 RMR=0.08 GFI = 0.87 AGFI = 0.84 CFI = 0.94 RMSEA = 0.06
H 2	Risk-Sensitiveness	→	Entrepreneurial intention	0.04	0.13	0.30	
H 3	Proactiveness	→	Entrepreneurial intention	-0.01	0.13	-0.11	
H 4	**Problem solving**	→	**Entrepreneurial intention**	**0.56**	**0.21**	**2.66***	
H 5	**Expertise**	→	**Entrepreneurial intention**	**0.57**	**0.11**	**5.37****	
H 6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ial behavior**	**0.98**	**0.06**	**16.34****	

*: p<0.05, **: p<0.01

영향력은 0.98로 이들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결과는 〈표 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그리고 창업행동과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구성항목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가운데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다가서는 진취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위험감수성보다는 혁신적인 방법과 변화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업에서는 창업자가 미리 예견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설정하고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요인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가설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에서 응답자들은 혁신성, 문제해결능력, 전문성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창업은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 직면한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저성장시대 등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를 타개할 대안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실제로 1990년대 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창업한 창업세대들은 오늘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사회과학 전공분야의 한 교과목으로 등장한 창업관련 교과는 현재 학부 뿐 만 아니라 창업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 잡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학문적 성장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창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이 창업에 도전한 기존의 창업자들에게도 창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창업관련 교과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법과 독창성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것과 창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돌발적인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창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창업관련 교과의 교수법에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진취성은 창업자가 가져야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가서서 시작하는 능력은 창업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자신의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모한 위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예견된 위험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의 성공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며, 우

연한 기회에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창업자가 창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해당 분야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어쩌면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격조건이면서, 당연적 요인을 의미하는 위생요인과 관련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취성과 혁신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은 창업시장에서 승리자 요건이면서 매력적 요인 또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취성과 혁신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의 함양은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이 가져다줄 성과 이상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일 수 있다. 즉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역량을 고루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관련 교과에서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과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창업을 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창업자들의 응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창업은 내부적으로 보유한 자원과 역량 등 모든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과 경쟁자, 공급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이 상존한다. 본 연구자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의 인식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기존에 창업을 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창업자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Jae-Hac Kang, Dong-Woo Yang,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26, No.6, pp.493-507, 2013.

[2] Hyewon Kong, Hyos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31, No.12, pp.2223-2244, 2018.

[3] Yougtae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ndicator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89-95, 2015.

[4] Soyoun Park,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 for Social entrepreneur", *HRD*, Vol.12, No.2, pp.67-96, 2010.

[5] Hyewon Shin,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phd desertation paper, Seoul university, 2017.

[6] Jun-Hwna Yang,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2564-2572, 2015.

[7] Youngmi Oh, Sungwhan Park,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12, No.2, pp.199-221, 2014.

[8] Junghee Han, Jungho Kim,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26, No.6, pp.2777-2797, 2013.

[9] J.C. Anderson, E.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h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1988.

[10] C.G. Brush,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4, pp.5-30, 1992.

[11] C. Fornell, D.F. Larcker, "Evaluating stre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12] L. Hatcher, *A Step by Step Approach to Using SAS for Factor Analysis and Strctural Equation Modeling*, NC: SAS Publishing, 2003.

[13] T. Karmann, R.Mauer, T.C. Flatten, M. Brette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rrup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33, No.2, pp.223-234, 2016.

[14] M. Lerner, C.Brush, R. Hisrich, "Israeli women entrepreneurs: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2, No.4, pp.315-339, 1997.

[15] G. T. Lumpkin, G.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pp.135-172, 1996.

[16] D. Miller,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29, No.7, pp. 770-791, 1983.

[17] J.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34.

[18] A. Shapero, "Self-Renewing Economies",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Vol.5, No.4, pp.19-22, 1981.

[19] J. A. Timmons, S. Spinelli,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McGraw-Hill

Education, (1999)

[20] F. Liňan,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iccolla Inpresa Small Business,* Vol.3, pp. 11-35, 2001.

[21] R. M. Grant,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7, No.2, pp.109-122, 1996.

[22] P.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and Row, NY, 1985.

[23]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pp. 179-211, 1991.

김 장 호(Jang-Ho Kim) [정회원]

- 1997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마케팅

금 용 필(Yong-Pil Geum) [정회원]

- 1995년 8월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공학(공학석사)
- 2014년 2월 :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대학원 건설공학(공학박사)
- 1991년 5월 ~ 2011년 5월 : SD 건설주식회사 이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혁신창업성장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창업, 마케팅, 건설공학, 환경공학